

1. 制度와 政策

- (1) 一般
- (2) 經濟 관련
- (3) 社會間接資本 관련
- (4) 産業. 企業 관련
 - 1) 一般
 - 2) 中小企業 및 産業 構造 관련
 - 3) 技術 開發 관련
 - 4) 環境 관련

2. 經營과 人事 組織

3. 戰略

4. 社會와 文化

5. 라이프 스타일

1. 制度와 政策

(1) 一般

- 정부 관리 基金 통폐합, 민자당(「전자신문」 1.15)
- 도전받는 민주주의 체제: 냉전 종식 이후 배타적 민족주의 등 反民主 세력이 「자유 국가」 존립 위협(「세계일보」 1.17)
- 더 미룰 수 없는 韓國銀行 독립: 구체적 과제 집중 점검(「한겨레신문」 1.17)
- 민자당, 복수 노조 인정 검토, 정치 활동 허용도 포함; 여론 수렴 후 年内 관계법 개정(「중앙일보」 1.26)
- 토지 公概念制 시행 3년, 세금 부담금 1조 원 육박(「서울경제신문」 1.26)
- 포스트 자본주의 對備 서두르자, 피터 드러커(「중앙경제신문」 1.5)
- 공업진흥청, 기업 발목잡는 행정 규제; 규제 따른 사회적 비용 GNP 10%(「중앙일보」 1.13)
- 국가 규격 체계 全面 개편 추진; 소비자 보호, 기술 경쟁력 강화 겨냥(「세계일보」 1.20)

* 국내 日刊 新聞(1993: 1.1-3.23)을 대상으로 한 정보 자료 추적

- 경실련, 우리 사회 이렇게 바꾸자; 17개 분야 78개 정책 과제 제시(「한겨레 신문」 2.3)
 - 새정부 출범후 '기업 인력 감원 特別法' 등 추진; 경영 합리화, 분규 事前 예방케(「한국경제신문」 2.14)
 - 고용 보험제 95년부터 도입, 농림 수산·건설 제외 10인 이상 사업장(「서울경제신문」 2.15)
 - 일본 경제사회체제 개혁 압력 직면, 경제 모순 타개 노-사-정 再定立 여론 높아(「세계일보」 2.22)
 - '제로 베이스' 예산 제도 도입(「전자신문」 2.24)
 - 정책 결정 '黨政 力學' 변화 예고; 청와대 掌握 일어나 黨 재량권 약화(「중앙경제신문」 2.28)
 - '경제 행정 규제 완화위원회' 신설, 정부(「중앙경제신문」 3.6)
 - 근로자 성과급 免稅 추진(「중앙경제신문」 3.6)
 - 농지 취득. 전용 규제 대폭 완화(「매일경제신문」 3.9)
 - 日本 정치 자금 규제 강화(「중앙경제신문」 3.17)
 - 한국 '국가 안정도' 세계 19위로 부상(「매일경제신문」 3.23)
 - 규제 완화 조속 단행; 670개 과제, 법률 개정 年内 매듭, '新經濟 100일 계획'(「매일경제신문」 3.23)
- ### (2) 經濟 관련
- 일본, 輸入농산물 전담 기구 신설, 쌀값 안정화 법도 제정, UR 타결후 대비(「중앙경제신문」 1.5)
 - 정부, 올해 외자 유입 70억 달러 증가 예상되어 대책 강구; 연불 수출 확대, 해외 투자 촉진, 외화 대부 강화(「전자신문」 1.6)
 - 40평 이상 단독 주택 대상 駐車場 확보 의무화; 6대 도시 기준 대폭 강화(「조선일보」, 1.13)
 - 부동산 신탁회사의 신상품, 부동산 담보 신탁 업무 인가; 현행 제도 큰 변화 예고(「내외경제신문」 1.21)

- 다카시(일), 정부의 무역 정책 지원을 輸出保險爲主로 전환 건의(「한국경제신문」 1. 29)
- 무역업 허가 기준 年 수출 5만 달러로(「전자신문」 1. 29)
- 外國人 投資, 개방 예시제 도입: 업무용 땅 취득 제한 완화, 專用 공간 조성 (「서울경제신문」 1. 31)
- '關稅 還給' 절차, 전문가도 어렵다(「매일경제신문」 2. 2)
- 수출보험 청구실 못한다; 총 수출액의 2.7%에 불과(「매일경제신문」 2. 4)
- 서상목(민자당), 정책 回生 위해 임금 고삐 잡아 야(「서울경제신문」 2. 8)
- 미국의 移轉 價格 과세와 대응 방안(「중앙경제신문」 2. 8)
- 산업 정책 효율 추진을 위해 산업연구원(KIET) 내에 民官 정책 협의체 구성(「매일경제신문」 2. 8)
- 임금 가이드라인 원칙 합의(「내외경제신문」 2. 10)
- 미국 대기업, 정부에 '마켓 셰어 정책' 촉구; 관리 무역 한시적 실시 요구(「매일경제신문」 2. 13)
- 무역 어음 할인 크게 늘어 작년 3조 원 돌파(123% 증가) (「중앙경제신문」 2. 20)
- 상공회의소, 實名制 3단계 실시를(「조선일보」 3. 5)
- 재무부, 通貨 관리 방식 개혁을 위한 실무반 구성 작업 착수(「매일경제신문」 3. 5)
- 수출 촉진·중소기업 자금난 위해 대기업 貿易金融 부분 허용(「서울경제신문」 3. 5)
- 경제 규제 완화 211 개 과제 선정(「한국경제신문」 3. 6)
- 한미 통상 마찰 해소를 위한 새정부 多角 대책 모색: 자유 무역 협정 체결도 검토(「서울경제신문」 3. 7)
- 기업 활동 규제 196 개 법규 정비, 認許可 대폭 완화(「내외경제신문」 3. 9)
- 이코노미스트 클럽 토론회, 실명제 현실적 방안 강구할 때(「매일경제신문」 3. 10)
- 수출품 '先신고 後제조' 허용; 통관 절차 대폭 간

- 소화 방침; 관세율 5%로 하향 조정(「매일경제신문」 3. 10)
- ILO, 對韓 '複數 노조 금지' 是正 권고(「서울경제신문」 3. 11)
- 한국 은행, '거시 계량 경제 모델' 분석: 인위적 성장 정책 효과에 한계(「중앙경제신문」 3. 13)
- 시급한 時間制 고용 입법(「매일경제신문」 3. 16)
- 확정된 경제 비서실 陣容(「한국일보」 3. 16)
- 금융 실명제, 금리 자유화, 통화 관리: 핵심 경제 정책 基調 혼선(「서울경제신문」 3. 16)
- 대기업 남녀 차별 형사 처벌(「세계일보」 3. 16)
- KDI, 실명제 단계적 시행이 바람직(「한국경제신문」 3. 17)
- '금리 자유화' 연기 배경(「매일경제신문」 3. 18)
- 실명제 실시 대폭 후퇴(「세계일보」 3. 18)
- 절차 복잡한 北方 투자(「중앙경제신문」 3. 23)

(3) 社會間接資本 관련

- 체신부, 電 通信 사업 세부 계획(「전자신문」 1. 20)
- 정부, 전국 도로망 6,120km 마스터 플랜 수립. 2001년 완공(「내외경제신문」 1. 21)
- 한국 정보화 수준 낙후, 선진국의 10-20%선 불과; 정보 처리 서비스 분야 특히 낙후(「중앙일보」 1. 25)
- 국적선 140만 톤 늘린다, 항만청(「중앙경제신문」 1. 29)
- '소화물 宅配制' 유명무실, 소비자 인식 부족으로 이용 저조(「매일경제신문」 1. 29)
- 전국 통신망 구축 지역 均衡 發展 유도(세미나) (「전자신문」 1. 29)
- 컴퓨터 개발·보급, 民官 協力 본격화(「한국경제신문」 1. 30)
- 93年 부서별 정보화 정책 포럼(「전자신문」 1. 30)
- 기업 물류 비용 年 20조 원, GNP의 20%(「서울경제신문」 1. 30)
- 홍콩, 시내 走行 통행세 검토, 교통 체증 예방위해(「경향신문」 2. 1)
- 정보화 5개년 계획, 국가 차원 綜合 정책 절실(「매일경제신문」 2. 3)

- 자동차 세제, 走行 위주로 개편, 민자당 방침(「매일경제신문」 2. 3)
- 한국 정보화 수준, 일본의 70년도 初 정도: 미국의 60년대 못미쳐, 통신개발연구원 조사(「국민일보」 2. 4)
- 分散 교통 정책 一元化, 행정 종합 조정 기구 추진; 정책·투자 효율성 제고; 지역간 수송 체제 구축(「내외경제신문」 2. 7)
- 국영 기업 올해 정보화 투자 2, 300억 원(「매일경제신문」 2. 9)
- 한국·EC, 연구 전산망 구축. 과학기술처; 내년 개통 목표(「내외경제신문」 2. 13)
- 전국 땅값 37년만에 2, 200 배 치솟아; 不勞 소득 상위권 집중(「한겨레신문」 2. 16)
- 아시아·태평양 통신 협력 적극 참여해야(「한국경제신문」 2. 16)
- 차세대 전산망 구축 추진(「한국경제신문」 2. 16)
- 지역 정보화 사업 본격화; 부산 등 3 곳 통신 센터(「매일경제신문」 2. 18)
- 수도권 교통 대책 특징, 서울-위성도시 廣域 연계 체제로(「경향신문」 2. 20)
- 1997년 환상의 이동 사무실; 通信衛星 100여 대 지구 궤도 돌아(「전자신문」 2. 19)
- 일본, 신 사회자본에 대규모 투자, 정보통신-교육-의료 등 次世代 통신망 구축 최우선(「중앙경제신문」 2. 25)
- 제2이동통신, 4월께 사업자 선정 再開(「내외경제신문」 2. 25)
- 수술대에 오른 정부 투자 기관<현황>(「한국경제신문」 2. 25)
- 도로·철도 행정 교통부로 통합, 건설·운영 업무 효율성 고려(「매일경제신문」 2. 26)
- 사회간접자본 투자, 발등의 불; 김영삼 정부의 과제(「중앙일보」 3. 5)
- 통신 이용 급증 예상(연 평균 증가율 10% 넘어); 데이터 전송 가장 많이 늘 듯(「중앙경제신문」 3. 20)
- 러시아 정부, 2개 프로젝트 야심찬 청사진; 세계 최단거리(아시아-러시아-유럽 연결) 통신망 만든다(「전자신문」 3. 20)

- 수도권 공용화 가속(「문화일보」 3. 22)
- 경기 지역 공장 新·增設 등 규제 완화, '수도권 집중' 억제 무너진다(「서울경제신문」 3. 22)
- 「정보화 시범 지역」 지정 육성; 都農間 격차 해소 위해(「서울경제신문」 3. 22)
- 그린벨트 개발 대폭 허용, 9월까지 20개 모형 마련키로 건설부(「세계일보」 3. 23)
- 고속도로 2001년까지 1, 120km 신설 필요, 국토개발연구원(「중앙일보」 3. 23)
- 정보화 추진 稅額 控除, VAN 사업자 자금 지원(「한국경제신문」 3. 23)

(4) 産業·企業 관련

1) 一般

- 외화 대출 자금 무제한 공급; 모든 제조업체로 대응 확대(「중앙경제신문」 1. 18)
- 新知的 財産權 보호법 제정, 관련 기업체 대책 마련 절실(「세계일보」 1. 8)
- 船社, 정책 자금 외면, '조건 나쁘다'로 2년간 용자 실적 전무(「중앙경제신문」 1. 9)
- 대기업 부동산 취득 규제 완화; 공장용 부지 매입 등 사후 신고로 가능(「세계일보」 1. 14)
- 경제기획원의 「獨寡占 지정」 문제 많다; 91년도 기준 적용으로 시장 상황 변화 반영 안돼, 편의주의적 행정 처리(「전자신문」 1. 16)
- 공산품 안전 검사제 도입 추진, 품질 관리는 기업 자율로(「매일경제신문」 1. 16)
- 산업연구원 협의회, 대기업 집단 전문화 등 유도해야(「한국경제신문」 1. 16)
- 상공부, '세계 일류화 상품의 품질 기준' 제정, 1차 10개 품목 지정(「서울경제」 1. 20)
- 관세 환급받기 쉬워진다; 更正 請求制 도입(「세계일보」 1. 20)
- 非業務用 땅 조건부 규제, '여신 관리' 규제 내달 대폭 완화; 신규 업종 진출 기회 확대, 30대 그룹으로 대상 축소(「매일경제신문」 1. 21)
- 상공부, 「製造業 경쟁력 대책」에서 「産業 경쟁력 강화 대책」으로 확대; 정보-유통-교육-환경 분야 추가(「세계일보」 1. 22)
- 분당 등 신도시 단독 주택, 債券 매입제 폐지 추

- 진(「서울경제신문」 1.25)
- 기업, 稅制 지원 활용 못한다(「서울신문」 1.27)
- 조달청, 금년 업무 계획, 능력별 수주 경쟁 체제 확립(「내외경제신문」 1.29)
- 정부 구매 물자 原產地 증명제, 조달청 추진(「중앙경제신문」 1.29)
- 정부, 중소기업 육성 특별 조치법 제정 추진(「내외경제신문」 1.31)
- 독과점 140품목 355개사 지정, 매출 기준 따라: 작년보다 4개 품목 늘고 3개사 늘어(「매일경제신문」 1.4)
- 상공부, 新 開發 機械 등 30여 품목, 수입 다변화 지정(「서울경제신문」 1.11)
- 외화 표시 국산 기계 구입 자금, 환 위험·담보 요구에 업계 外面(「매일경제신문」 1.13)
- 여신 관리제 대폭 완화는 재벌 정책 '집중 관리'로 전환 신호(「매일경제신문」 1.13)
- 금융 개편 試案: 중소기업 지원 업무 등 특수 은행서 전담, 정책 금융 窓口 일원화(「서울경제신문」 1.18)
- 산업 정책 심의회 '민간 협의체'로 機能 개편: 전략 산업 장기 계획, 산업정책과 환경 정책 連繫(「세계일보」 1.20)
- 상공부, '일렉트로 21 프로젝트' 대상 품목 확대(「내외경제신문」 1.26)
- 업종별 산업 정책 수립 예정(「내외경제신문」 2.1)
- 공업 진흥 행정 대폭 개선, 정부 주도 止揚 - 정책 개발 위주 전환(「전자신문」 2.1)
- 미국, 한국의 무역 금융 보조금 등 13 건에 대해 상계 관세 움직임(「경향신문」 2.1)
- 30대 재벌 自己資本 비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(「서울경제신문」 2.5)
- 기업 전문화 장려법 추진: 현 업종 전문화 시책 흡수,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분 참여 완화(「한국경제신문」 2.5)
- 30대 재벌 상호 지급 보증 제한 범위를 대폭 축소(「내외경제신문」 2.6)
- 정부, 올해 3조 5,000억 원 구매, 신기술 중소기업 제품 우선적(「한국경제신문」 2.8)

- 자동차 안전 기준 강화, 업계 제도적 보완 요구; 올해 7월 시행은 무리, 新車개발 준비 기간 고려 안해(「서울경제신문」 2.9)
- 공업진흥청, '2000년대 공업 행정' 심포지엄; 기술·품질 정보 시스템 구축 시급, 상공부 등 13개 기관 정보 채널 온라인화, 규격 정비·品質 認證制 도입 등 바람직(「전자신문」 2.10)
- 신발 산업 합리화 시설 투자 세액 공제(「매일경제신문」 2.10)
- 정부 공사 '最低價 낙찰' 방식 전환, 재무부 월말부터 시행(「매일경제신문」 2.12)
- 재벌 業種 專門化하면 세계 금융 지원(「내외경제신문」 2.14)
- 업종 전문화 지침 마련, 21 개로 대분류; 그룹서 추진 계획 제출하여 정부에서 심의토록(상공부 방침)(「매일경제신문」 2.15)
- 마구잡이 工團 지정 문제 많다, 수요 5 배 초과, 무더기 미분양 사태(「서울경제신문」 2.16)
- 수입선 다변화 품목 수입 추천 신청 激減(「전자신문」 2.18)
- 4월 시행 '平殘 기준 여신 바스킷 관리', 대기업 투자 막는다(「중앙경제신문」 2.21)
- 나프타 유분 가격 자유화될 듯, 석유화학업계 자체 수요 충족따라(「한국경제신문」 2.22)
- 대기업에 주력 업종제 본격 도입(「중앙경제신문」 2.25)
- 중소 섬유업체 자동화 적극 지원, 연내 320억 원 방출, 염색 기술 등 3 개 과제 선정(「중앙경제신문」 3.2)
- 주택건설업계, 재개발 촉진법 別途 제정 건의(「내외경제신문」 3.4)
- 정부, 재벌의 自律 해체 유도(「국민일보」 3.11)
- 새정부의 대 재벌 정책 윤곽(「세계일보」 3.12)
- 정부, 4-5개 그룹 내부 거대 내달 실사; 하도급 위반 등 처벌 강화(「한국경제신문」 3.13)
- 대형 가구 업체, 단체 결성 움직임, '공정거래협의회' 확대도 검토(「매일경제신문」 3.13)
- 여신 관리 30대 그룹 調整(「한국경제신문」 3.13)
- 공정 거래 활동 강화가 뜻하는 것(「서울경제신문」 3.13)

- 건설 행정 분야 규제 완화의 의미(「서울경제신문」 3. 13)
- 신발 산업 합리화 자금 신청 急増(「문화일보」 3. 15)
- 정부, 재벌 업종 전문화 중점 지원(「서울경제신문」 3. 15)
- 계열화 豫示制 확대 실시, 제품 개발부터 대기업-중소기업 서로 連繫(「조선일보」 3. 16)
- 재무부, 재벌 부동산 취득 제한 조기 해제 추진 계획(「전자신문」 3. 17)
- KIST 보고서, 독립 경영 체제 도입돼야 기술 혁신 가능하다;자동차 등 경쟁력 제고 강조(「조선일보」 3. 19)
- 정부의 재계 불공정 거래 행위 실태 조사 반대(「서울경제신문」 3. 19)

2) 中小企業 및 産業構造 관련

- 輸出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무역 금융 대출 보증 한도 업체당 25억원으로 상향 조정(「중앙경제신문」 1. 9)
- 상공부, 중소기업 合併 장려 업종, 신발 등 23 개 새로 추가(「한국경제신문」 1. 9)
- 우수 중소기업 도산 방지책 추진(「서울경제신문」 1. 18)
- '중소기업 정보은행' 설립(「한국경제신문」 1. 21)
- 작년 중소기업 지원 3조 원 돌파, 내자 구매 2조 원 포함, 조달청(「매일경제신문」 1. 21)
-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규제 철폐;신청분 전액 허용하기로(「서울경제신문」 1. 22)
- 중소기업 사업 轉換 부진, 작년 지원 90 사 그쳐(「내외경제신문」 1. 22)
- 중소기업 사업 구조 갈수록 취약, 기술 집약도 낮은 업종 진출 크게 늘어(「중앙일보」 1. 25)
- 정부 조달 55% 중소기업 購買(「내외경제신문」 1. 29)
- 상공부, 都市型 업종 전면 개편 추진(「내외경제신문」 1. 29)
- 정부, 중소기업 육성 特別 措置法 제정 추진(「내외경제신문」 1. 31)
- 중소기업 금융 지원 대폭 강화(「서울경제신문」

1. 11)

- 올해 기업 직접 금융 20조 원으로;외국인 투자 확대 방침(「서울경제신문」 1. 17)
- 대기업서 거래 중소기업 추천 '연계 보증'활성화 바람직;신고율 낮아 지원 효과 커(신용보증기금)(「한국경제신문」 1. 18)
- 국민은행, 중소기업 운전 자금 즉시 대출 포괄 승인제 시행(「매일경제신문」 1. 19)
- 대기업 사업 중소기업 이양 부진;92년에도 91년보다 9.7% 감소(「중앙일보」 2. 1)
- 창업투자회사 제구실 못한다;중소기업 창업 지원 업무도 못내(「세계일보」 2. 3)
-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지원 대상 및 대출 조건(「한국경제신문」 2. 3)
- 중소기업사 PQ制 큰 반발(「내외경제신문」 2. 3)
- 대한무역진흥공사, 359 개 중소기업 국제 영업망 대행으로 '해외 지사화' 사업 성과(「내외경제신문」 2. 3)
- 중소기업 창업 지원금 확대 : 92년 對比 23.4% 늘려 5,300억 원(「내외경제신문」 2. 3)
- 정부,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단 설치 계획(「전자신문」 2. 6)
- 항공업계, 전문系列化 추진(「내외경제신문」 2. 9)
- 세탁 비누 등 17 개 품목, 독과점 관리 대상에서 제외, 4월부터(「매일경제신문」 2. 12)
-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단 發足(「매일경제신문」 2. 13)
- 중소기업 특별 세액 減免制, 제조업 소득 세금 20-40% 감면(「서울경제신문」 2. 16)
- 직업 훈련 分擔金制 혜택 교육 기관 축소, 중소기업 '기회 상실 - 경비 가중'호소(「매일경제신문」 2. 16)
- 상공부, 산업 구조 조정 지원 강화 위해 遊休 설비 仲介 회사 설립 검토(「서울경제신문」 2. 17)
- 신정부 과학 기술 정책, 기술 개발에 금융 지원 확대(「중앙경제신문」 2. 25)
- 해외 특허 심사관 파견, 특허청(「한국경제신문」 2. 25)
- 産學研 공동 기술 개발, 지역 컨소시엄제 도입(「전자신문」 2. 27)

- 외국 기술 국산화 성공 기업, 소비자 외면 販路 막혀(「조선일보」 3. 2)
- 특허 共有化 제대로 안된다. 기술差 「견제 심리 높아;업계, 국내 기업간 양보 적절한 보상 필요(「중앙경제신문」 3. 2)
- 중소기업은행, 기술 개발 410억 원 지원, 내달 20개 과제 示範 企業 선정(「전자신문」 3. 2)
- 미국, 지적재산권 우선 협상국 지정 우려로 대응책 시급(「내외경제신문」 3. 3)
- 생물공학, 보호 움직임 대처(「매일경제신문」 3. 3)
- 93년 생산·공업기반기술 525개 개발 과제(「한국경제신문」 3. 6)
- 요소 기술 등 900억 원 공급, 제조업 경쟁력 강화 525개 과제 선정 신규 지원(「내외경제신문」 3. 6)
- 92년 산업 재산권 출원 대기업 줄고 중소기업 급증, 특허청 발표(「내외경제신문」 3. 8)
- 과학기술처, '미디엄 테크' 개발 주력. 과학 기술 정책 방향 시사(「매일경제신문」 3. 8)
- 韓-EC 지적 재산권 협약 내용(「매일경제신문」 3. 8)
- ISO 9000인증·제도 도입과 전망(「중앙경제신문」 3. 9)
- 과학기술처, G7 프로젝트 수정, 「新機能·생물소재」 등 3건 보완(「한국경제신문」 3. 10)
- 정부, '산업기술개발 촉진 기금' 설치, 97년까지 3조원대 造成 추진(「서울경제신문」 3. 11)
- 일본 '신 사회자본 투자', 기술력 향상에 예산 집중(「중앙경제신문」 3. 11)
- 대기업 '창업 센터' 참여 유도;자본 없는 신기술 보유자 公益 차원에서 지원토록(「세계일보」 3. 12)
- 2000년까지 353개 기술 실용화(「한국경제신문」 3. 13)
- 과학 기술 정보 부족 '갈증', 과학기술처 직원 대상, KIST조사(「전자신문」 3. 15)
- 일본의 '産學研 밀월' 옛말... 재정난 허덕;전환기 맞은 대학들(「중앙경제신문」 3. 15)
- '신기술 인증제' 정착, 작년 12건 신청 중 8건 처리(「전자신문」 3. 16)

- 기초 과학 연구 협력 컨소시엄에 기업 참여 활발(「내외경제신문」 3. 16)
- 기술 개발 준비료 적립 申告制 폐지(「전자신문」 3. 18)
- KIST 건의 : 일본처럼 기술 모방 방식 필요;G7은 우선 순위 다시 설정해야;産學 協同, 기업간 공동 연구 필요(「중앙경제신문」 3. 20)
- 국내서 개발된 첨단 생명 공학 기술, 해외에서 死藏될 위기(「한국경제신문」 3. 20)
- G7 프로젝트 범위 축소해야(「한국경제신문」 3. 20)
- '기술 福券' 나온다;1등 1,000만원, 즉석식 등 3월 25일 첫 발행(「중앙일보」 3. 20)
- 과학 기술 정책 궤도 수정 논란, 中級 기술 집중 육성 발언 과문(「전자신문」 3. 22)
- 특허 심사 기간 짧아진다(「매일경제신문」 3. 20)
- 첨단 기술 對美 종속 심화 우려(「서울경제신문」 3. 22)

4) 環境 관련

- 환경 보전 위해 알뜰 소비 노력, 새해 소비자 단체 중점 사업(「매일경제신문」 1. 4)
- 환경처, 大氣 環境 기준 크게 높인다 : 2000년엔 WHO 권고치 달성(「내외경제신문」 1. 6)
- 상공부, '폐기물 예치금' 負擔金制로 전환;냉장고·에어콘 2개 품목 추가(「전자신문」 1. 7)
- '환경 규제' 업계 대응 활발;유리·타이어 등 협의체 구성, 재활용 사업 추진(「중앙경제신문」 1. 8)
- 한·일·중, 환경 협력 본격 추진(「서울경제신문」 1. 8)
- '폐 가전품 예치금제 강화'에 電子業界 경쟁력 약화 반발(「서울경제신문」 1. 8)
- 日本 공해 방지와 환경 산업(「한국경제신문」 1. 6)
- 騒音 규제 대상 시설 확대, 채석장·광산·발전소 등, 환경처(「중앙경제신문」 1. 9)
- 국산 환경 기자재 품질 낙후;거의 수입, 환경처(「중앙경제신문」 1. 10)
- 새 대기 환경기준 선진국에 뒤져(「한국경제신문」

1. 10)

- '유해물 유출'대책 기구 추진, 내무부·보사부·노동부·환경처;환경오염 폭발사고 신속 대처 ('매일경제신문, 1. 11)
- 법제처, 근거 규정 삭제로 배출 부과 가산금 징수 못해 ('서울경제신문, 1. 11)
- 중국 대기 공해 유입 대응, 올해부터 大氣 분석, 환경처 ('문화일보, 1. 11)
- 땅 중금속 오염 심화, 금속 광산과 금속 제련소 隣近 지역 ('한국경제신문, 1. 12)
- 환경처, 「행정 계획 및 산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」 공표: 개발사업 환경규제 강화, 事前 협의 의무화 ('조선일보, 1. 13)
- 재활용추진협의회 설립 확대: 공공기관, 商街 등 밀집 지역에도 구성 ('조선일보, 1. 13)
- 환경 모범 업체 75 개 지정, 환경처 ('조선일보, 1. 13)
- 자동차 배기 가스 단속 강화, 市界-고갯길 15곳 지정 ('조선일보, 1. 13)
- 정부, 바다 오염 6개 圏域 나누어 정화;3조 9, 000억 원 투자, 특성 맞게 대책 수립 ('중앙일보, 1. 15)
- 下水 終末 처리장 확충 ('중앙일보, 1. 15)
- 새정부 과제, 환경 정책;오염 모니터링 기본 네트워크 구축;GNP 1% 그린라운드 적용에 ('전자신문, 1. 15)
- 환경처, 東西洋 환경 보전 총력. 96년까지 3조 9, 000억 원 투입 ('서울경제신문, 1. 16)
- 활기 띠는 '자원 재활용': YWCA 등서 우유팩 상설 교환, 관련법 개정하여 민간단체 참여 촉진 ('중앙일보, 1. 17)
- 공해 배출 불시 단속: 문제 업체 대상 제도화(년 2회) ('중앙일보, 1. 16)
- 중소기업 단체, 폐기물 공동 처리장 마련 매듭
- 공해 관리·감시 체제 강화. 20곳 오염 실태 市서 파악 ('조선일보, 1. 19)
- OECD, 각국에 환경세 신설 권고 ('중앙경제신문, 1. 18)
- 환경 단체별 캠페인 현황 ('조선일보, 1. 18)
- 정부, '지구 환경 대응책' 소극적;44개 과제 중

추진 10개 뿐 ('한국경제신문, 1. 20)

- 소비자 안전위해 환경 오염 상품도 안전마크제 실시 ('서울경제신문, 1. 25)
- 환경 부담금 55, 000업체 부과 ('한겨레신문, 1. 25)
- 환경 생각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('조선일보, 1. 25)
- 新種 환경세, 탄소세 도입. EC ('조선일보, 1. 26)
- 기아 자동차, 폐차 再活用 나섰다 ('내외경제, 1. 26)
- 가전 제품, '소음 등급 표시제' 도입 ('서울경제, 1. 26)
- 국내 환경 기술 시장, 年 1조로 매년 급신장 ('매일경제신문, 1. 27)
- 대기오염 주범 작년 16% 증가 ('한국일보, 1. 28)
- 환경처 생태계 보호 지역 지정, 주민 반발로 차질;개발 제한·생계 지장 이유 ('한국경제신문, 1. 29)
- 서울시 쓰레기 대책 漂流, 주민 반발 부딪쳐 ('서울경제신문, 1. 30)
- 환경 산업 시장 급 팽창, 지난해 매출 규모 3조 원 ('한국경제신문, 1. 31)
- 중소기업 '産災 예방 기금' 대폭 확대 ('매일경제신문, 1. 13)
- 환경처 93年 업무 보고: 환경세 신설, 환경영향 평가법 제정 ('매일경제신문, 1. 13)
- 에너지 낭비는 노후 설비가 主犯. 産銀의 에너지 이용 실태·개선 방안 ('전자신문, 1. 20)
- 皮革 조합의 새해 과제: 폐기물 처리 ('서울경제신문, 1. 20)
- 정부 환경기준 非현실적 ('한국경제신문, 1. 25)
- 환경 마크 대상 품목 확대 ('서울경제신문, 1. 27)
- 환경마크제 실효 적다 ('한국경제신문, 1. 27)
- 느슨한 환경 기준이 公害 부채질 ('한겨레신문, 2. 2)
- 脫 환경규제 체질 개선 총력전: 淸淨 공법 기술·제품 개발 박차 ('서울경제신문, 2. 2)
- 쌍용, 환경 투자 늘려, '그룹환경위원회' 신설 ('매일경제신문, 2. 3, '중앙경제신문, 2. 4)

- 선진국 환경 규제 強化 때는 수출 10억 달러 이상 감소, KIET(「매일경제신문」 2. 4)
- 산업 폐기물 처리 기준 완화, 업계 부담 年 1,000억 원 輕減 혜택(「중앙경제신문」 2. 4)
- '환경시범지역' 선정 特惠 시비(「문화일보」 2. 2)
- 독·일, 폐 가전품 再活用 움직임 활발(「전자신문」 2. 5)
- 공산품 검사 환경 안전에 역점(「중앙경제신문」 2. 5)
- 오염 측정 代行制 엉터리(「한국경제신문」 2. 7)
- 환경처 마련 철도 소음 基準案, 교통부·철도청 강력 반발 논란(「서울경제신문」 2. 8)
- 재계, 그룹차원 '환경 기구' 설립 러시; 공해 발생 억제, 미래 산업 개척(「매일경제신문」 2. 8)
- 동북아 환경 협력 본격화(「매일경제신문」 2. 8)
- 중소기업 협동조합들, 직업훈련원·폐기물 처리 센터 설립 등 공익 사업 적극 추진(「서울경제신문」 2. 9)
- 地下水道 요금 물어야, 수익성 사업 사용 일정량 이상 허가 받도록(「서울경제신문」 2. 9)
- 골프장 8곳에 첫 '환경부담금'(「서울경제신문」 2. 11)
- 대기업, 폐기물 처리 사업 본격 진출(「한국경제신문」 2. 11)
- 환경 영향 평가 不履行 때는 사업자 형사 처벌(「내외경제신문」 2. 12)
- '환경 창구' 단일화 공감대 형성,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결산(「중앙경제신문」 2. 12)
- 두산, 환경 산업 진출(「동아일보」 2. 13)
- 화장품 샘플 용기 '공해', 한 해 4억 개 뿌려 처리 곤란, 값으로 따지면 220억원 낭비(「중앙경제신문」 2. 13)
- 쓰레기 소각로 2조 원 시장 부상; 플랜트·건설업체 각축(「매일경제신문」 2. 15)
- 환경설비 1조 원 시장 쟁탈전(「한국경제신문」 2. 15)
- 환경보전위원회, 유명무실(중양 2. 16)
- 동북아 환경 협력, 정보 교환 등 공동 대처 절실(「세계일보」 2. 16)
- 쓰레기 소각 처리, 1.6% 그쳐, 일본의 1/46. 환

- 경처 2001년까지 3조 4,000억원 투입으로 27%로(「한겨레신문」 2. 16)
- 공해 설비 개별 인가는 모순 많다(「매일경제신문」 2. 16)
-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제 대상 품목 확대키로(「전자신문」 2. 17)
- 産災 보상 제도에 노동자 외면(「한겨레신문」 2. 17)
- 환경 운동 어디로 가야 하나... 대기업 주범, 정부 직무 유기(「동아일보」 2. 17)
- 폐기물 예치금 대상 품목 확대(환경처)에 전자업계 반발: 처리 비용 제조업체 전액 부담은 불합리; 경영난, 경쟁력 약화 초래(「내외경제신문」 2. 18)
- 폐가전 재활용 연구 難航(「전자신문」 2. 18)
- 환경처의 환경 파괴책(「조선일보」 2. 18)
- 그린피스; '환경 보호 깃발' 30개 국에 국가 조직(「조선일보」 2. 18)
- 환경 정책 '용두사미' 시행, 여론 비껴가며 흐지부지(「한겨레신문」 2. 18)
- 농민 짓줄에 폐수 콧물(「한겨레신문」 2. 19)
- 환경 전쟁, 선진국 탄소세 등 도입 非常(「동아일보」 2. 19)
- 일본 환경 설비 受注 작년 2조 엔 돌파(「매일경제신문」 2. 19)
- 선진국 탄소세 도입엔 산업 생산 年 0.7% 감소, 무역협회 의뢰 DRI보고서(「매일경제신문」 2. 19)
- 바다 오염 사고, 범정부 대응 방침(「한국일보」 2. 26, 「중앙경제신문」 2. 20)
- 폐기물 예치금 확대 反撥: 업계, 원가 상승 요인으로 부과는 아직 이르다(「한국경제신문」 2. 20)
- 분리 수거 완전 정착 '시범 신도시'(「조선일보」 2. 22)
- 폐기물 예치금 편법 회피, 상품용기 유리 대신 합성수지 사용, 규정 악용 눈가림 성행(「중앙경제신문」 2. 23)
- 쓰레기 수거료에 家族稅 월 1인당 백 원 신설, 가정용 40%, 사업장 60% 인상(「중앙일보」 2. 23)
- 화학 공단 억지 조성... 주민 반발, 사전 협의 공해 대책 미흡; 주변 양식장, 농경지 오염 걱정으로

- 백지화 요구(「중앙일보」 2. 23)
- 연탄재·석탄재 재활용, 제도 뒷받침 빈약(「중앙일보」 2. 23)
- 유해물 취급 부실. 211 개소 행정 처분, 작년 46 곳 적발(「매일경제신문」 2. 23)
- 석유화학업계, 환경 선언(「매일경제신문」 2. 23)
- 자원 재활용 업종 지원, 폐지·폐유리 8개 품목 하반기에, 환경처(「한국경제신문」 2. 24)
- 재활용 산업 육성 시급하다. 지원책 마련, 기술 개발 바람직(「내외경제신문」 2. 24)
- 쓰레기 소각로 '다이옥신' 배출 무방비(「한겨레신문」 2. 25)
- 가전업계 환경 보호 부담 비상. 대상 품목 늘어 預置金 5배 급증, '자원 재활용법' 대책苦心(「중앙경제신문」 2. 26)
- 정부 기관 등 환경 평가 外面(「한겨레신문」 2. 28)
- 선진국 탄소세 도입엔 무역수지 200억 달러 타격(「내외경제신문」 2. 20)
- 열차·항공기 소음 기준 곧 제정(「매일경제신문」 3. 1)
- 서울 주요 터널 오염 극심(「조선일보」 3. 1)
- 환경 규제 확산, 제조업 초긴장(「내외경제신문」 3. 2)
- '환경 부담금' 개선 건의, 徵收 行政 곤란-임대료 인상 우려(「조선일보」 3. 4)
- 미국 도입 추진 에너지稅, 국내외서 거센 반발(「서울경제신문」 3. 4)
- 환경분쟁 調整委員會 있으나 마나, 91년 발족후 4건 처리 그쳐; 民願 쏟아져도 대책 전무, 중재 결과 구속력 없어 신청 기피도(「매일경제신문」 3. 5)
- 한·일 종교인 '환경 보호' 공동 대응 모색(「세계일보」 3. 7)
- 광역 쓰레기 매립장 건설 차질(「한국경제신문」 3. 8)
- 업계, 폐기물 예치·부담금 제도, 일부 품목 과다·二重 적용, 업계 개선 요구(「서울경제신문」 3. 9)
- 쓰레기 처리비 96년까지 4 배 인상, 환경처(「서울

- 경제신문」 3. 9)
- 농산물 오염 규제 강화(「한국경제신문」 3. 9)
- 중국 도시들 대기 오염 重症(「조선일보」 3. 10)
- 환경 분쟁, 폐수 배출이 最多; 골프장·건설·농약 사용으로 마찰(「한국경제신문」 3. 11)
- 작년 사상 첫 쓰레기 감소(「한국경제신문」 3. 11)
- 방사성 폐기물 처리 多角 대책(「매일경제신문」 3. 11)
- 자동화 공정, 스트레스 유발 크다. 한국 생산성 본부(「매일경제신문」 3. 11)
- 환경 기술 도입, 미국·일본에 偏重(「중앙경제신문」 3. 12)
- 가전 제품 재활용 全無(「조선일보」 3. 12)
- 합리적 환경 운동으로 '에코토피아' 건설(「세계일보」 3. 12)
- 환경 정책, 사후 처벌 위주 재고해야(「매일경제신문」 3. 13)
- 환경 마크 주도권 다툼, 민간 단체 '녹색'도입 따라, 기업 二重 부담, 소비자 혼란 우려(「매일경제신문」 3. 15)
- 폐기물 預置金制 걸돈다, 제조업체 재활용 무관심, 회수 금액 7%뿐(「중앙경제신문」 3. 15)
- 탄소稅싸고 대립; 산유국 對 소비국(「한국경제신문」 3. 16)
- 10,000 톤 이상 산업 폐기물, 기업 자체 처리 의무화, 6월부터(「중앙일보」 3. 16)
- 걸프협력회의, EC 에너지稅 신설 반대(「중앙경제신문」 3. 16)
- 家電品·가구 수거료 전국 확대(「조선일보」 3. 16)
- 개발부담금법에 구멍; 주택조합·회사 해산뎀 내지 않아도 합법(「중앙일보」 3. 17)
- 産災 예방이 경쟁력 핵심; 대기업 안전관리 조직대폭 강화(「매일경제신문」 3. 18)
- '폐기물 소각료 의무화' 産電업계 대환영(「전자신문」 3. 18)
- 다국적 기업, 환경 오염 주범(「전자신문」 3. 18)
- 산업 폐기물 재생 활발, 135 개사 폐지 등 이용 100여 제품 생산(「한국경제신문」 3. 19)
- 철강업계 에너지 절약 투자 활발, 작년 4,580억

원(「매일경제신문」 3. 22)

- 자연 환경 보호 행정 걸돈다; 部處·地自體마다 적용 엇갈려(「매일경제신문」 3. 22)
- '교통 영향 평가'에 방송국, 주차장 새로 추가, 상반기 시행(「매일경제신문」 3. 22)
- 분리 수거 쓰레기, 재활용 잘 안되고 있다(「경향신문」 3. 22)
- '그린카드' 사실상 白紙化(「한국경제신문」 3. 22)
- 환경처, '폐기물 재활용 事例集' 발간(「중앙경제신문」 3. 23)

2. 經營과 人事 組織

- 그룹 신입 사원 교육, 생활 예절서 탈춤까지 망라(「내외경제신문」 1. 8)
- 경방, 경영 혁신 운동 확대(「내외경제신문」 1. 8)
- 인센티브제 고충 많다, 한신증권 설문조사 결과: 동료간 불화(「중앙경제신문」 1. 9)
- 종합상사 수출 포상제 확대(「내외경제신문」 1. 10)
- 기업 買收 '실패 전형' 日 브리지스톤社 정상되찾아: 감량 경영 등 합리화 정책 주효(「한국경제신문」 1. 11)
- 미국 대기업 '分社化' 추진 러시; 部署長에 독립사와 같은 권한 부여(「한국경제신문」 1. 11)
- 기업 性差別 폐지 늘어난다: 호봉 단일화 人事 변혁, 금융계 앞장(「문화일보」 1. 15)
- IBM시대는 끝났는가?(「세계일보」 1. 14)
- 現地 출퇴근제 늘고 있다. 전자부품 유통 업계(「전자신문」 1. 16)
- 해외 자원개발 事前 調査 없이 참여하여 손해 많다(「세계일보」 1. 17)
- 중소기업 마케팅 외부 의뢰 붐, 제품 기획서 판매까지 일괄 대행도(「매일경제신문」 1. 16)
- 기업들 物流 費用 절감 열을리다. 제3의 이윤원, 매출액 20% 차지; 포항제철-대우전자-금호 등 최신키법 도입(「세계일보」 1. 18)
- 대우전자 새해 유통 전략: '탱크주의' 기치, 고객지향 '이미지 쇄신'(「전자신문」 1. 18)
- 새 경영 전략: 켄미팅, 水平感 중요시(「문화일

보」 1. 18)

- 명예 퇴직제, 은행권 확산(「내외경제신문」 1. 21)
- 감량 경영 무관; 長壽 전문 경영인들 화제(「내외경제신문」 1. 21)
- 일본, 제3의 경영 혁명: 敗者 復活式 인사 정책- '인간 최대한 존중' 바탕 조직 활성화 기여(「한국경제신문」 1. 13)
- 대기업 그룹, 올 신입 사원 교육 방향(「매일경제신문」 1. 14)
- 대기업 임원직 줄고 있다(「매일경제신문」 1. 16)
- 미국 최고 경영자, 외부 영입 급증: 내부 승진보다 경영 쇄신 유리(「매일경제신문」 1. 19)
- 일본 기업 제3의 경영 혁신: 하이테크 일변도 탈피; 단순한게 좋다, 復古風 상품 인기(「한국경제신문」 1. 20)
- 기업들 '顧客 滿足 경영' 도입 경쟁(「세계일보」 1. 25)
- 금성사, 품질계약제 도입, 외주 소형 가전 경쟁력 배양(「내외경제신문」 1. 26)
- 엘리베이터 올해 수출 역점, 내수 부진 타개(「내외경제신문」 1. 26)
- 21세기 대비한 企業 經營 혁신: 미국, 일본, 국내 대기업(「중앙경제신문」 1. 28)
- 미국 기업, 경제 전쟁 대응 위해 '신 다윈주의' 물결; IBM 등 대규모 감원 체제 정비 추진(「문화일보」 2. 1)
- 쫓겨나는 미국 최고 경영자들(「서울경제신문」 2. 2)
- 다시하면 된다, 대한알미늄 '뉴베트 2000'(「내외경제신문」 2. 2)
- 미국 시티코프社, 과감한 사업 재편, 經營 정상화; 자산 賣却, 減員 통해(「중앙경제신문」 2. 3)
- 창조적 전문가만이 살아 남는다(「중앙경제신문」 2. 3)
- '능력 위주 인사' 추진 관심, 삼성: 연공서열식 탈피 나서(「매일경제신문」 2. 3)
- 일본 새기업 이념: 개인 중시, 횡적 구조로 전환 추진(「중앙경제신문」 2. 4)
- 대기업 그룹 인사, 經營 自律 대폭 보장(「중앙일보」 2. 2)

- 일본 기업들, 終身 雇傭制 재검토(「매일경제신문」 2. 2)
- '능력별 임금제' 확산 예고(「매일경제신문」 2. 5)
- 삼성 비서실 임직원, 他社 견학 나서(「매일경제신문」 2. 5)
- 차세대 모델 'VC' 각광(「매일경제신문」 2. 5)
- 국내기업 商標 管理 미흡(「한국경제신문」 2. 6)
- 대우, 대대적 조직 개편(「내외경제신문」 2. 6)
- 고객이 웃을 때 기업도 웃는다: 상품 기획부터 서비스까지 '고객만족혁명'(「한겨레신문」 2. 8)
- 기업 社內 교육 변화 바람: 신세대 공동체 의식 실무력 향상(「서울경제신문」 2. 8)
- 중소기업인 해외 연수 활발(「매일경제신문」 2. 8)
- IBM, 슬림화·모델 개선... 再起 안간힘(「매일경제신문」 2. 8)
- 소상공장제 주요 사례: KR 고려산업 사장, 교량·육교 난간 기술 독보적(「내외경제신문」 2. 9)
- 신한은행, 직군별 인사관리제 도입(「서울경제신문」 2. 9)
- 경영 새바람, '가자 현장으로': 삼성전자·금성사·대우 자동차, 시장 변화 대응, 불황 돌파 모색(「서울경제신문」 2. 9)
- 일본 기업 제 3의 경영 혁명: 次世代 공장 박차: 완전 자동화로 꿈의 공정 실현(「한국경제신문」 2. 9)
- 미국 기업들 새바람, 중간 관리자 像이 바뀐다: 지시 감독 옛말, 직원에 조언 역할(「중앙경제신문」 2. 10)
- 미국기업 최고 경영자 更迭 바람(「매일경제신문」 2. 10)
- 해외 진출 기업, 잇단 노사 분규;강압적 노무 관리화 自招;한국적 경영 방식 탈피 시급, KOTRA 실패 사례 제시(「서울경제신문」 2. 11)
- 신선한 디자인·포장 개발, 對日 역조 개선 겨냥한다;주방기기, 낚시대, 골프공(「서울경제신문」 2. 11)
- 기업체, 전자 우편 시스템 도입 잇따라;포항제철, 한라그룹(「매일경제신문」 2. 11)
- 일본 후지쓰, 年俸制 도입, 관리직 상대로 내년 4월부터 실시, 보너스도 前年 업무성적 따라 차등

(「중앙경제신문」 2. 11)

- 일본 기업 제 3의 경영 혁명;노동 시간 단축, 노동의 質 추구로 생산성 향상(「한국경제신문」 2. 11)
- 기업 인재 교육 패턴 변화;삼성, 한라 국제 전문가 육성(「매일경제신문」 2. 12)
- 일본 기업 제 3의 경영 혁명;정보 네트워크화 박차(「한국경제신문」 2. 17)
- 기업 인사, 아직도 年功 우선(「매일경제신문」 2. 17)
- 능력 과정보다 서열 결과 중시, '국내기업 경영·인사 관리'(「한국일보」 2. 18)
- 보람의 일터 어떻게 일켰나? 삼양사 25년간 노·사 동반 관계 정착(「경향신문」 2. 19)
- 선경 정보교육센터, 고급 SW 기술인력 產室, 하루 10시간 강도 높고 실습 위주 교육(「전자신문」 2. 19)
- 上司의 지나친 간섭 되레 역효과. 개방적 노무 환경 두뇌 활동 기름 역할;창의력 제발(「전자신문」 2. 19)
- 자원 퇴직자 모집, 뜻밖의 쇄도, 한국 IBM(「한국경제신문」 2. 19)
- '기능인 모셔가기' 시대;직업훈련원 門前成市(「한국경제신문」 2. 20)
- 토요일 隔週 休務 늘고 있다(「한국경제신문」 2. 20)
- 미국 산업 현장 교육 열기 뜨겁다(「매일경제신문」 3. 12)
- 종업원 創案制 활기, 대기업 독립 부서 운영, 보조금 지원도(「세계일보」 2. 22)
- 화이트 칼러 수난 시대, 減員 한파에 몸조심(「한국경제신문」 2. 23)
- 자동차, 生産職 줄이고 販賣職 늘린다(「매일경제신문」 2. 23)
- 선경 인더스트리, '리워딩제' 실시, 능력 노력 따라 특별 상여금 차등 지급(「매일경제신문」 2. 23)
- 재계에 경영 대혁신 강풍;업종 재구축, 인사·조직 등 정기 작업 등(「매일경제신문」 2. 24)
- 상품 디자인 세미나, 感性 고객 구매 변화 앞서 읽어야(내외 2. 24)
- 미국에 새 경영기법, '마인드 매핑'유행(「중앙경

제신문, 2. 25)

- 럭키금속, 설비 보존 관리 체제를 위한 경영 혁신 프로그램 완성(「내외경제신문」, 2. 26)
- 기아자동차, 지역별 수출 전담제(「한국경제신문」, 2. 27)
- 금성사 '특 A 작전' 분야별 최고의 경쟁력 武裝; 히트 상품 시장 主導(「내외경제신문」, 2. 27)
- 일본 경영학의 新潮流(「내외경제신문」, 2. 20)
- 은행, 인력 관리 변화하고 있다(「한국경제신문」, 3. 2)
- 大韓商議, 500만 달러 이상 수출 서울 395개 조사; 선진국에 해외 마케팅 크게 뒤져(「한국경제신문」, 3. 2)
- 기업의 인사 관리 이렇게 한다; 創意와 自律의 존중, 잠재력 살려 '희망 부서제' 등 확산
- 마케팅 확산... 불황 모른다. 제품·유통 구조 차별화로 성장 구가 기업들(「서울경제신문」, 3. 2)
- 대기업, 그룹 통괄 조직 축소; 기획조정실, 비서실, 운영위원회 등 대상, 계열사별 자율 경영 체제, 새정부 경제력 집중 완화 정책 呼應(「한국경제신문」, 3. 3)
- 삼성전자, '전산 受配送 계획 시스템'으로 물류 비용 크게 절감(「한국경제신문」, 3. 3)
- 모토롤라 경영방식, 미국 산업계에 선봉; 품질중시·인간위주 경영 지향, 전략 품목에 R & D 집중 투자, 회장이 직접 세일즈; IBM, AT & T 등 앞다퉈 모방(「전자신문」, 3. 4)
- 미국 쇼 인더스트리사, 경영 혁신 성과로 카펫 시장 석권; 트렌드는 스스로 만드는 것(「중앙경제신문」, 3. 4)
- 기업마다 경영 혁신 운동; 코오롱 그룹, 럭키금성 상사, 현대건설(「서울경제신문」, 3. 4)
- 삼성, 일본에서 사장단 회의; 경쟁력 원천 現場서 확인(「매일경제신문」, 3. 5)
- 삼성엔지니어링, 젊은 사원들 모여 회사 비전 논의(「중앙경제신문」, 3. 6)
- 인사관리 이렇게 한다; 인력 재배치, 재충전 통해 業務 效率性 높인다(「한국경제신문」, 3. 7)
- 경영기법 혁신 바람; 선경, 럭금, 대우 등 개발팀 稼動, 판매·조직·관리 수술 큰 성과(「서울경제

신문, 3. 7)

- 인사 관리 이렇게 한다. 능력 最高潮인 48세때 도달 가능 직위 제시(「한국경제신문」, 3. 9)
- 대덕전자, 경영혁신 정착, 불황속 성장; 88년부터 'FINE 운동'(「서울경제신문」, 3. 10)
- 인사관리 이렇게 한다; 전직원 경영학 석사 만들기 투자((주) 금호(「한국경제신문」, 3. 11)
- 주요 그룹 任員陳 몇 명이나 되나(「내외경제신문」, 3. 13)
- 인사 관리 이렇게 한다; 대리급 대상 종합관리능력 배양(대우그룹)(「한국경제신문」, 3. 16)
- 재계 새 경영 환경 불황 대응위해 變身 서둘러, 總帥 앞장 현장서 진두 지휘(「서울경제신문」, 3. 16)
- 요즘 일터, Moving Office制 확산(「매일경제신문」, 3. 18)
- 일류화 상품제 개선 절실(「매일경제신문」, 3. 18)
- 일본 기업, 제3의 경영 혁명; 攻擊的 M & A 반성(「한국경제신문」, 3. 18)
- 인사 관리 이렇게 한다; 社長과의 대화(쌍용컴퓨터)(「한국경제신문」, 3. 18)
- 미국 단위 기업 급부상, 생산 등 부수업무 모두 외주 처리(「중앙경제신문」, 3. 18)
- '組立型 기업 조직' 화제(「전자신문」, 2. 3)
- 일본 기업 제3의 경영 혁명; 노동 시간 단축(「한국경제신문」, 2. 11)
- 대기업 정보 조직 대폭 강화(「서울경제신문」, 2. 16)
- '日本式 경영' 맹목적 도입 지양을(「한국경제신문」, 3. 20)
- 인사 관리 이렇게 한다; 그린 플랜, 정년 앞둔 사원에 老後 설계 지원(대한석유공사)(「한국경제신문」, 3. 21)

3. 戰 略

- 일본 시장 진출 新戰略, 소매점 直輸出 바람직, 무역협회(「내외경제신문」, 1. 8)
- 기업간 협력 체제 마련 활기; 마케팅 共助(製藥), DB 공조(광고사)(「매일경제신문」, 1. 9)

- 북한 경제 지원, 변화 유도해야(「세계일보」 1. 8)
- 일본 기업, 아시아 유통 지점화; 중국 主軸 백화점 등 거미줄 진출(「한국경제」)
- 합성수지; 상표 경쟁, 특징 없는 중간재에 自社 이 미지 부각(「외경제신문」 1. 18)
- 텔레마케팅 전문가 확산, 電話로 판매·관리, 시 간 절약-많은 고객 접촉 이점(「세계일보」 1. 18)
- 컴퓨터 유통 업체, 프랜차이즈 등 '유통 기법' 문 제점 드러나(「전자신문」 1. 18)
- 미국 아티스틱 그리팅사, 상품에 注文者 이름 부 착 "히트"-개인화 상품(「중앙경제신문」 1. 20)
- 大型 백화점, 다점포화 박차, 경영 제휴(「한국경 제신문」 1. 20)
- 금성사 '품질 계약제' 도입: OEM 외주업체 대상 (「전자신문」 1. 21)
- 자동차, 신경영 전략 박차. '수익·경쟁력·기술' 승부(「경향신문」 1. 31)
- 중소기업 固有 상표 수출 확산(「서울경제신문」 2. 3)
- 백화점 '통합 구매' 확산, 현대·미도파·뉴코아 등 多店舖化 따라 물량 확보, 가격 조건 등 이점 (「매일경제신문」 2. 6)
- 기술·투자 제휴 강화할 때 : 한국은 APEC 등 域 內 협의체 활용 필요(「매일경제신문」 2. 6)
- 미국 차부품 TRW사; 일본 시장 공략 성공... 호 황 구가(「중앙경제신문」 2. 8)
- 기업의 국제 제휴: 리스크 分散 전략적 利點(「내 외경제신문」 2. 8)
- 異業種間 기술 교류 서둘러야(「전자신문」 2. 8)
- 기업 생산-판매 전략 바뀐다; 장기 불황 극복 위해 반품 사절, 주문 판매로 전환(「세계일보」 2. 9)
- 선진국 核心 기술 확보 전략, 競爭 관계 이용 교 섭력 확보(「내외경제신문」 2. 13)
- 家電 3사, 해외 투자 전략 전환; 연구 센터 설립 등(「전자신문」 2. 13)
- 자기 상표로 해외 시장서 우뚝(무역협외, 성공기 업 사례집) (「서울경제신문」 2. 16)
- 의류업체 大型 전문점 개설 붐(「내외경제신문」 2. 16)
- 한국 상표 20여개 777 BYC 등 세계 시장에 뿌리

- 내렸다(「한국일보」 2. 18)
- 한미 통상 관계; 정부·업체 공동 전략 급선무(「내 외경제신문」 2. 19)
- 한일 기술 이전 촉진하려면 일본 기업에 대한 직 접 투자 필요, 주한 일본 대사(「중앙일보」 2. 18)
- 한국의 새 경제 외교·국제화 전략, 정부·기 업·국민 '개방 體質化' 절실(「조선일보」 2. 20)
- 미래의 '기업 생존 전략' 제시: 적응 기업(엘빈 토플러 저) (「내외경제신문」 2. 22)
- 일본 기업 제 3의 경영 혁명: 불경기 적극 대처, 광고비 등 투자 확대로 수요 誘引(「한국경제신 문」 2. 24)
- 가전업체 판매 專門社 설립 긴요(「전자신문」 2. 27)
- 고속 전철 수주 로비戰 치열: 독일, 프랑스, 일본 (「한국경제신문」 3. 3)
- 對 일본 마케팅 전략 전환 시급(「내외경제신문」 3. 3)
- 補償 販賣制, 불황시대 새 판촉 수단으로 각광 (「조선일보」 3. 4)
- 대만, '자기상표' 대대적 지원, "OEM 저가 수출 국 이미지 벗다"; 개발비 면세 혜택, 수출 기업에 자금 보조(「서울경제신문」 3. 4)
- 삼성그룹, 일본에서 전략 회의 주목(「국민일보」 3. 5)
- 한국 무역협회, 한국 상표의 국제화 전략(「서울경 제신문」 3. 8)
- 세계 대기업들, 새 광고전략 부심: 구매력 급신 장, 亞洲 시장 공략; 문화 차이 초월, 공통 이미지 창출(「한국경제신문」 3. 8)
- 눈덩이 적자 불구 과감한 성장 전략, 伊 컴퓨터 업체 올리베타사, 자신에찬 경영, 성공 여부에 주 목(「한국경제신문」 3. 8)
- 세계 대기업, 경영 전략이 바뀌고 있다; 기술·인 력 國境없이 채용, 생산'판매'관리 현지 分權化; 50%가 사업 본부 현지화(「한국경제신문」 3. 11)
- 폴크스바겐, 매출액 위주서 이익 중심으로, 新任 회장 새 경영전략 채택(「한국경제신문」 3. 15)
- 미쓰비시-DEC, MPU 사업 제휴; 알파칩 생산· 판매 강화, 新機種 공동개발 착수(「전자신문」

- 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; 첨단 통신 기자재 공동 개발 추진(「한국경제신문」 3. 18)
- 일본 시장 이렇게 개척했다(「매일경제신문」 2. 3)
- 중소기업 異業種 교류 국제화(「한국경제신문」 2. 11)
- 産電업계에도 관측 바람(「전자신문」 3. 22)

4. 社會와 文化

- '노인복지문제' 정책 전환해야(「세계일보」 2. 27)
- 여성 장관 3人 入閣(「중앙일보」 3. 2)
- 젊은 작가들 미래의 이미지 찾아 나섰다(「국민일보」 3. 2)
- 종합병원 '가정 치료제' 도입(「조선일보」 3. 2)
- 종교의 정치적 역할(「세계일보」 3. 3)
- 한국 인구 老齡化 가속(「매일경제신문」 3. 4)
- 여성 공적 지위 세계 최하위 : 고위 공무원 5% 미만 - 정부 지원 절실, 여성개발원 정책연구팀 논문 지적(「경향신문」 3. 4)
- 시대 변화; 의식의 새흐름을 말한다, 이어령, 이문열(상)(「조선일보」 3. 6), (하)(「조선일보」 3. 7)
- 김영삼 정부의 과제 : 문화 예술 정책 방향(「중앙일보」 3. 8)
- 여성 고용 확대, 저임 문제, 7개항 對政府 질의서 채택,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(「중앙경제신문」 3. 9)
- 30대 여성 작가 소설 속 '목소리 내기'(「조선일보」 3. 9)
- 독자들, '지난책' 많이 찾는다(「문화일보」 3. 8)
- 책의 해 長期 베스트셀러(「문화일보」 3. 9)
- 봄 화단 페미니즘展 활발(「문화일보」 3. 9)
- 詩세계 다양해졌다. 文藝誌에 나타난 최근 경향 : 담담한 일상서 사회諷刺까지(「문화일보」 3. 10)
- 커뮤니케이션 출간 봄(「문화일보」 3. 10)
- 한국 사회 구조 성격 규명 연구서 '한국권위주의 국가론' 서평(「한국일보」)
- '寄與 입학' 선별 실시(「내외경제신문」 2. 10)
- 의료·금융·보험·증권 분야 등 '소비자 피해 구제 死角 지대', 분쟁 조정 위원회 제구실 못해(「서울경제신문」 2. 10)
- 중견 출판사, 良書 퍼내기 경쟁, 비디오·오디오 연결한 '새 形式 소설' 내기도(「매일경제신문」 2. 10)
- 베스트셀러서 스테디셀러까지(「매일경제신문」 2. 10)
- 새정부, 근로 복지 역점을 42%, 경단협 근로자 1,000명 조사(「서울경제신문」 2. 11)
- 韓國病 치유 쉽지 않을 듯(「중앙일보」 2. 11)
- '억압과 배제'로는 사회 통합 불가능(「한겨레신문」 2. 12)
- 광고 유행어, 불확정 시대 반영 - '그말도 정답이네' 등 좋은 반응(「동아일보」 2. 13)
- 컴퓨터 문화 시대 본격화, 신한국 문화<6>(「한국경제신문」 2. 15)
- 국내 집필 경제 情報書 한창, 기업 풍토 환경 맞춰 실용성 높여(「한겨레신문」 2. 15)
- 역사인물 소설 범람(「한국일보」 2. 16)
- 소설계 : 당찬 여주인공에 끌려 다니는 남자, 조용한 혁명(「국민일보」 2. 16)
- (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 의식) 서평(「한국경제신문」 2. 17)
- 패선계, 異色 행사·사업 활발(「매일경제신문」 2. 17)
- 패스트 푸드점 : 신세대 사교장으로 인기(「한국경제신문」 2. 18)
- 21세기 진단 : 새 윤리 없이는 위기 탈출 못해 : 도덕성 정립이 세기 말의 최대 과제 기소르망 교수(「문화일보」 2. 18)
- 個人주의 강해지는 정보화 시대(「전자신문」 2. 19)
- 여성 취업, 구조적 불평등 시달린다(「국민일보」 2. 19)
- 정책 제시 서적 봇물, 사회 경제 통일 등 각분야 망라(「내외경제신문」 2. 22)
- 선진국형 사회 복지 센터, 전국 3,800여 곳 설치, 96년까지, 보사부(「서울경제신문」 2. 23)
- 신세대 주축 희곡 7편 연속 舞臺(「한국경제신문」 2. 25)

- 93년 여성계,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 주력(「조선일보」 93. 1. 4)
- 신세대 부부, 아내 입김 세졌다; 집안 문제 공동 결정 많아(「조선일보」 1. 1)
- 페미니즘 예술 全盛 시대, 여성 주제라야 잘 팔린다(영화, TV, 소설 등)(「문화일보」 1. 20)
- 여류 작가 3인, 자기 발견 内面の 소리(「문화일보」 1. 25)
- 전자책 출판 활발(「중앙일보」 1. 25)
- 근로자 86% 물가 안정이 우선; 생산직은 젊을수록 職業 滿足度 떨어져, 중소기업은행(「서울경제신문」 1. 28)
- 여성계, 남녀 同一 業務에 동일 임금 요구(「세계일보」 1. 30)
- 미국 예술계도 '클린턴' 바람(「경향신문」 1. 30)
- 미국 오키스트라 지휘자들, '성적 카리스마' 퇴조; 남성적 매력보다 실력을 우선(「경향신문」 1. 30)
- '책의 해' 선정·예술 종합교 개교 등 의욕 넘친다 - 93년 문화계 분야별 전망: 출판, 미술, 여성, 연주, 무용, 영화·비디오, 패션(「매일경제신문」 1. 4)
- 여성만의 일터 조용한 확산(「한국일보」 1. 25)
- 여성 취업, 3차 산업 大移動, 여성 개발원 1989-91년 분석(「서울경제신문」 1. 31)
- 중소기업 현장의 哀歡, 출판붐(「서울경제신문」 2. 1)
- 수출 마케팅, 문화적 특성 이해 필요, 200여 종 差別化로 성공 거둔 네슬레 커피 타산지석(「매일경제신문」 2. 6)
- 문화의 산업화 시대 개막: 생산·유통 과정에 마케팅 接木; 개념 정립·국내 시장 보호, 해외 진출 강구가 과제(「한국경제신문」 2. 8)
- '사회 변혁과 해계모니' 다원성 존중, '급진 민족주의' 추구, 서평(「서울경제신문」 2. 9)
- 중소기업 목격는 부조리, 돈 안주면 되는 일 없다, 비리 만연한 사회, 죄의식 조차 마비(「한국일보」 2. 9)
- '신통찮은 일자리 싫다' 自發的 실업 최대 현안(「한국일보」 2. 9)

- '주택 보급률' 산출 문제 있다, 다가구 주택도 법률로는 한 채(「중앙경제신문」 3. 12)
- 주거 문화: 빌라 특보(「중앙경제신문」 3. 12)
- 소설계 새바람: 概念주의 문학(「한국경제신문」 3. 12)
- 흥대 앞 젊은 문화 각광(「중앙일보」 3. 13)
- 기획 출판 여성 그룹 활기; 일본 여대생 취업 전쟁(「조선일보」 3. 14)
- 고령화 사회 대비 시급(「중앙경제신문」 3. 15)
- 洞사무소 패션 바람, 서울 200여 곳 등 '爲民' 이미지 심기(「한국경제신문」 3. 16)
- 미국내 한국 문화 인식 낮다(「한국경제신문」 3. 16)
- '환경女權주의' 태동하고 있다(「한국경제신문」 2. 1)
- 일본 기업 제3의 경영 혁명: 여성 인력 적극 활용(「한국경제신문」 2. 19)
- '한국 문학의 세계화' 지름길 아니다(「세계일보」 3. 3)
- 여성 운동, '해방'과 '책임' 함께 해야(「조선일보」 3. 22)
- 사내 노래방, 동양제과(「서울경제신문」 3. 21)
- 고령화사회 對備 시급하다(「세계일보」 3. 23); 실버 산업 등

5. 라이프 스타일

- 한국인 소비 행태 달라져야(「조선일보」 1. 18)
- 제일기획, 라이프스타일·소비 행동 조사; 간편·유행·건강 추구 뚜렷(「한국경제신문」 1. 20)(「서울신문」 1. 26)(「매일경제신문」 1. 28)
- 작년 소비자 고발 22만 건(「서울경제신문」 1. 30)
- 신세대 신흥층, 좋은 직장 버리고 高額 과외 선생으로(「한국경제신문」 1. 27)
- 가전 제품 구매 결정권, 남편은 컬러 TV, VCR, 아내는 냉장고·세탁기; 대리점 방문 성능 비교 후 구입 늘어, 금성사 겔럽 소비자 設問 조사(「전자신문」 2. 9)
- 가구: 注文式 불박이장, 병풍식 도어 개발, 종류·기능이 다양해졌다(「한국일보」 2. 8)

- 맞벌이 부부 집 사면 共同 名義 登記(「매일경제신문」 2. 10)
- 미래주택 공장서 대량 찍어낸다;가전 통신 등 완비, 하이테크 시스템 작동(「조선일보」 3. 1)
- 일본의 뉴비즈니스;밥장사, 자동 판매기 「캔주먹밥」 개발;냉동밥은 작년 매출 50억 엔, 대기업까지 참여(「조선일보」 3. 1)
- '뉴비즈니스' 베스트 10;선진국 소개, 국내 未導入 · 초기 단계, 어린이 레스토랑 등(「조선일보」 3. 1)
- 개인 금융 자산 급신장, 지난 10 년간 연평균 23.5%나 GNP 크게 상회(「내외경제신문」 3. 2)
- 운전 면허 취득 급증, 가구당 1명꼴 소지(「매일경제신문」 3. 4)
- '동지族'이 늘고 있다. 가정 至上 젊은 맞벌이 부부들;공장 퇴근후 장보기도 함께, 주말여행용 승용차는 필수(「경향신문」 3. 4)
- 新世代, 스포츠 모자 선풍(「내외경제신문」 3. 4)
- 주요 가전품 수입 폭증 배경과 전망;불치병 '외제 선호' 주범, 소비자 의식이 문제(「전자신문」 3. 5)
- 外食 産業 10대층 공략 눈돌려, 양 적고 값싼 제품 선보여(「내외경제신문」 3. 6)
- 새벽 시간 이용 기업 많다(「조선일보」 3. 8)
- 신세대 영양보다 맛 중시(「한국경제신문」 3. 9)
- 백화점 베스트셀러는 갈비(「조선일보」 3. 10)
- CATV 시청하겠다 65%;大도시보다 邑面 지역이 욕구 높아(「매일경제신문」 3. 12)
- 自家 희망 60%가 中大型 선호, 주공 6大市 주택 수요 추정 조사 결과(「매일경제신문」 3. 15)
- 대도시 주민 61%가 18평 이하 주택 거주(「한국경제신문」 3. 16)
- 전자 오락 청소년 攻撃性 자극(「한국경제신문」 3. 16)
- 住宅도 예술 작품 시대, 건축가 21명 분당에 창작 타운(「경향신문」 3. 18)
- 新世代 겨냥 신상품 러시, 소비재 업체(「매일경제신문」 2. 12)
- 新世代 간편식 선호 87%, 대흥기획 18-23세 4,000명 조사(「서울경제신문」 3. 20) ♣

시대를 앞서가는



1993봄
FORUM

1993년 5월 인쇄

1993년 5월 발행

발행인 裴成東
편집인

발행처 : 現代經濟社會研究院

150-010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-4

전화안내 : (02) 784-6545~9

FAX : (02) 784-6583

인쇄처 : 서울컴퓨터인쇄사

대표전화 : (02) 636-0555